

축구대표팀 새 수장에 신태용 감독 낙점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 대표팀 이끌어

신태용 감독이 축구 대표팀의 새 수장으로 낙점됐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경기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기술위는 초반 5분 공개 후 약 5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마친 후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다.



신태용 감독의 임기는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다. '그라운드'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선수 시절 자타공인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였다. 2003년 K리그 최초로 60득점 60도움 클럽에 가입했다. K리그 통산 401경기 99득점 88도움 2실점을 기록하며 2004년 은퇴했다. 2실점은 그가 선수시절이던 2003년 대전과의 K리그 경기에서 부상으로 골키퍼가 교체되자 직접 골키퍼로 나서 허용한 실점이다.

신 감독은 2009년 성남 일화의 감독 대행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부임 첫째 팀을 K리그 준우승과 FA컵 2위로 올려놓았다. 2010년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우승을 거머쥐면서 K리그를 대표하는 명장 반열에 올랐다. 2012년 성적 부진을 이유로 성남 지휘봉을 놓은 신 감독은 이후 해설위원으로 잠시 활동을 했다. 2014년 울리 슈탈리케 감독이 부임하면서 수석 코치라는 타이틀로 그를 보좌했다.

신 감독은 2015년 킹스컵 지휘하다 백혈병으로 하차한 故 이광중 감독을 대신해 2016리우올림픽 감독을 맡게 됐지만 수석 코치직을 유지한 채 올림픽팀 감독을 겸임했다. 리우올림픽에서 8강 진출을 이뤄낸 신 감독은 이후 슈탈리케호로 복귀했다. 하지만 A대표팀에서의 시간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신 감독은 2016년 안익수 감독의 후임으로 U-20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고,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IFFA) U-20 월드컵에 출전해 16강 진출이라는 성적표를 남겼다.

/김민근기자



'데뷔 10주년' 소녀시대, 8월 전격 컴백

한류그룹 '소녀시대'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컴백한다. 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녀시대는 오는 8월 정규 6집을 발표한다. 2015년 정규 5집 '아이온 하트' 이후 2년 만이다. 소녀시대는 이와 함께 10주년 데뷔 기념일인 8월 5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0주년 기념 팬미팅 '걸스 제너레이션 10th 에너저서라-홀리데이 투 리멤버'를 연다. 다양한 히트곡 무대와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함께 10년 간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소녀시대는 국내 걸그룹 중 가장 큰 팬덤을 보유한 팀으로 통한다. 지난 2007년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이래 '키싱 유' '지' '소원을 말해봐' 등을 잇따라 히트시켜 스타덤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화여대생들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발해 분관 점거 농성을 벌일 때 경찰 앞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 꾸다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른 일은, 현재 젊은 세대에 대한 소녀시대의 영향력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특히 2010년대 초반 일본에서 한류 걸그룹 열풍을 일으킨 원조이기도 하다. SM은 "이번 정규 6집을 통해 지난 10년간 아시아 대표 걸그룹의 자리를 지켜온 소녀시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줄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하백의 신부' 첫 방 3.7% 순조로운 출발



tN 월화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가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일 첫 방송된 '하백의 신부 2017' 1회는 평균 시청률 3.7% 최고 4.5%를 기록했다. tN 타깃 시청층인 남녀 20~40대 시청률은 평균 2.4% 최고 2.8%를 기록, 케이블·위성·IPTV가 통합된 유료콘텐츠 가구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상으로만 그려던 신계 수국의 신비로운 비주얼과 신의 드높은 자존감의 모든 걸 잃어버린 '물의 신' 하백, '신과 종이라는 주종 관계로 이뤄진 소아·하백의 운명적 첫 만남' 등이 그려졌다. '하백의 신부'는 '인현왕후의 남자' 내인: 이후 번의 시간 여행'을 연출한 김병수 감독과 '비생'으로 필력을 인정받은 정윤정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배우 남주혁(23)·신세경(27)·임주환(35)·그룹 'x' 멤버 크리스탈(23)·정수정)·공명(23) 등이 출연한다. 매주 월·화요일 밤 10시50분 방송된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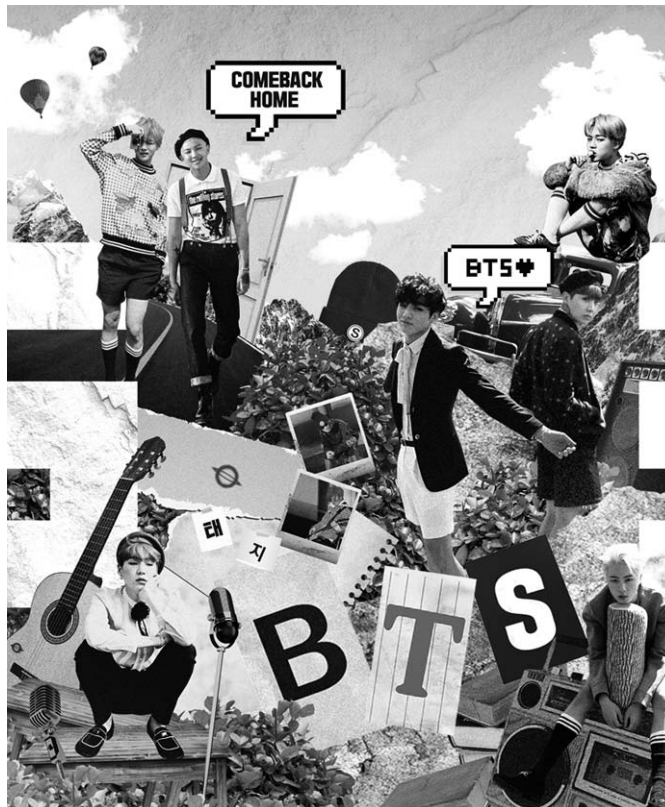
1995년 '서태지와아이들' 이 발표한 곡 22년 만에 재탄생

'대세그룹' 방탄소년단, '컴백홈' 첫 정식 리메이크

그들 '서태지와아이들'의 '컴백홈'이 대세그룹 '방탄소년단'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다. 4일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후 6시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서태지와아이들 원곡을 리메이크한 '컴백홈'을 공개한다.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표한 곡으로 22년 만에 첫 정식 리메이크됐다. 당시 가출 청소년에 대해 노래한 '컴백홈'이 던진 충격은 비단 대중음악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방탄소년단이 리메이크한 '컴백홈'은 오리지널 곡의 시그니처 사운드인 목직 한 베이스라인과 강렬한 비트, 인상적인 후렴구를 그대로 살린 채 방탄소년단만의 색을 입혔다. 현재 유행하는 일렉트로 트랩 비트와 방탄소년단 멤버 랩몬스터, 제이홉이 직접 참여한 랩 메이킹은 원작자에 대한 존경심과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자신감까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서태지컴퍼니는 전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특히 방탄소년단은 가출청소년이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원곡에 자신만의 꿈을 방탄소년단이 리메이크한 '컴백홈'은 오리지널 곡의 시그니처 사운드인 목직 한 베이스라인과 강렬한 비트, 인상적인 후렴구를 그대로 살린 채 방탄소년단만의 색을 입혔다."

/뉴시스

향해 노력하는 젊은 세대의 꿈과 노력, 열정이라는 메시지를 더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곡은 서태지 데뷔 25주년 기념 리메이크 프로젝트 '타임:트래블러'(TIME: TRAVELER)'의 첫 번째 곡이다. '컴백홈' 뮤직비디오는 오늘 공개된다. 서태지는 이번 방탄소년단의 '컴백홈' 리메이크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개성을 살린 훌륭한 리메이크 곡이 탄생한 것 같다"며 "당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던 '컴백홈'이 세대를 뛰어넘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태지는 데뷔 25주년을 맞아 9월2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공연 '뫼데카드 무브:사운드트랙 vol.2 - 서태지 25'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방탄소년단이 후배 가수 중 유일하게 서태지와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의 무대를 오리지널 사운드로 재현한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